

수소 · UAM ·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

□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중앙	□ 수소차 지원금 매년 수천억씩 늘지만 구매자는 급감 추세(2024.10.17) - 정부의 수소차 보조금은 매년 수천억 원씩 늘어나고 있지만, 실제 구매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. 지난해 수소차 신규 등록 대수는 2,805대로 감소 - 신차 공급의 부족과 충전 인프라의 미비가 수소차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 특히 충전소 인허가 문제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 - 김 의원은 수소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소 인프라 확충 및 보조금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,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
		□ 정부, 포스코'수소환원제철프로젝트' 적극뒷받침하겠다(2024.10.18) - 정부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며, 다양한 행정절차를 단축해 프로젝트 착공을 조기 가공 계획. 이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 -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에 각각 20조 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소를 건립하고 있으며, 이는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-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
		□ 한일 경제인 “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…수소·AI 협력 확대” (2024.10.18) -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청정에너지와 인공지능(AI)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. 이를 통해 수소·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예정 -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표준 마련과 함께 스타트업 협력 및 다양한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방안 논의. 특히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 - 양국 경제계는 3040 세대 교류를 활성화하고, 청정에너지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고도 인재를 활용하는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
		□ 수소차 보급 정체, 지난해 신규등록 반토막(2024.10.18) - 수소차 보급이 정체되면서 2023년 수소차 신규 등록 대수가 전년도 대비 절반으로 감소. 신차 공급 부족과 충전소 문제,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 -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, 현재 인프라 문제로 인해 달성 곤란. 충전소 인허가 지연과 주민 반대도 문제가 발생 - 전문가들은 충전소 확충과 수소차 구매자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정부가 보다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
		□ 30억 달러 교역국 오스트리아와 첨단 제조·수소 등 경제협력 강화(2024.10.21) -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첨단제조업, 디지털 기술, 수소 경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. 양국은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산업기술 협력을 추진 - 오스트리아는 기초과학에서, 한국은 산업기술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가 기대. 특히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공동연구가 진행 - 한국은 오스트리아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입법 관련 논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.
		□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작...연료 확보 경쟁력에서 성패(2024.10.21) -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(CHPS) 입찰이 시작되었으며, 다수의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가 수소·암모니아 기반 전력 생산 계획을 수립 - 이번 입찰에서는 전력 판매 가격과 연료 수급 계획이 핵심 평가 항목으로,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과 연료 도입의 안정성을 확보 필요 - 국내 기업들은 연료 확보 전략을 통해 15년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할 기회 제공
	지방	□ 고양시, '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' 공모 선정(2024.10.17) - 고양시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0억 원의 도비를 확보. 고양시는 수소생산과 모빌리티 보급을 선도할 수 있는 '수소생태계 확장 모델' 제안 - 해당 사업은 2025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,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수소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 - 미니 수소도시가 조성되면 하루 1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, 이는 수소버스 50대, 승용차 2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
		□ 2030년까지 수소트램 총 7대 도입...제주시내권 넘어 도내 전역에 철도망 구축(2024.10.21) - 제주도는 2030년까지 수소트램 7대를 도입하고, 제주시내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할 계획. 제주시와 제2공항을 연결하는 노선도 포함 - 트램 노선은 노형동부터 제주항까지 11.74km 구간으로 설정되었으며,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아 정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요건을 충족 - 제주도는 철도망 구축과 함께 모빌리티 환승허브와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, 트램 도입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과 자금조달 방안을 수립
		□ 제주에너지공사, 도내첫수소전문기업지정(2024.10.23) - 제주에너지공사가 도내 첫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됨.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에너지공사를 수소전문기업으로 신규 지정하여 제주에서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된 첫 사례 - 수소전문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이나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을 충족 필수. 2021년부터 시작된 수소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현재까지 99개 기업으로 확대 - 지정된 기업은 판로개척, 기술사업화, 정부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됨. 제주에너지공사는 3.3MW급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를 준공하여 도내 수소 버스 운영을 위한 연료를 공급 - 이번 지정이 도내 수소 사업 육성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며, 청정 수소 생산 확대와 에너지 전환 가속화 추진 가능
		□ 울진군, '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' 체결(2024.10.21) - 경북 울진군은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. 이 협약에는 14개 수소산업 관련 대학, 기업, 연구기관이 참여 - 주요 목표는 수소 생태계 구축과 인력 양성, 연구기반 강화. 이를 위해 대학들은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, 기업들은 연구개발 인력을 적극 채용할 계획 - 협약을 통해 지역 앵커기업, 대학, 연구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되며, 울진군이 수소경제 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
		□ 울진군 원자력수소산업진흥협의회 간담회 열어(2024.10.21) - 울진군은 원자력수소산업진흥협의회의 2차 간담회를 개최. 이 자리에서 원자력 기반 대용량 수소 생산기지 구축 전략이 논의 - 회원사들은 원자력 전기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,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 - 협의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, 울진군은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수소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끌 계획
		□ 서울시 수소버스 전환 현장 방문(2024.10.21) - 서울시는 수소버스 전환 현장을 방문하여 수소충전소 및 관련 인프라를 점검. 서울시는 수소버스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확대 - 수소버스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, 정부와 지자체는 충전 인프라 구축에 더욱 집중 - 서울시는 수소버스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,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계획
		□ "바이오 가스로 그린수소 생산? 정책적 역량 분산될라"(2024.10.21) - 제주도는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나,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정책이 나오면서 정책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- 제주도는 기존에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있었으나,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새로운 바이오가스 활용 계획이 발표되며 정책적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 - 도민과 의회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으며, 정부는 이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□ 함평군, 대기환경 개선 수소차 보급(2024.10.22) - 함평군은 대기환경 개선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, 올해는 추가로 3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예정 - 함평군은 2022년부터 수소차 9대를 보급했으며, 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군민들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. 보조금은 대당 3500만 원으로 책정 - 함평군은 수소차 보급과 함께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, 이를 통해 군민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
UAM	중앙	-(해당 없음)
	지방	□ UAM타고K2에서신공항까지...실감나는비행체험(2024.10.23) - 대구시가 23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'FIX 2024'에서 UAM(도심항공교통) 특별관을 운영. '대구 UAM이 바꿀 더 나은 미래'라는 주제로 SK텔레콤, 한화시스템 등 대기업이 참여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 -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의 UAM 기체 'S4'의 실물 크기 모형이 전시됨. S4는 가로 14m, 전장 7m의 대형 모델로, 8K 고화질 영상을 통해 실제 비행 체험이 가능. 대구 K-2 공군 기지에서 대구경북신공항까지 이동하는 체험을 제공 - 삼보모터스와 평화발레오도 KAI와 공동 개발 중인 UAM의 전기엔진을 선보일 예정. 이들은 5인승급 AAM 상용기체용 통합형 전기엔진 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, 사업비는 334억원에 도달 - 현대엘리베이터의 UAM 버티포트 운영 현황과 한국공항공사의 중·대형 버티포트 구축 모형도 전시. UAM 예약 서비스 플랫폼과 관제시스템 등도 소개되며, UAM 산업의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
우주	중앙	-(해당 없음)
	지방	□ 고흥우주발사전망대, 방문객 대상 특별한 가을 이벤트 진행(2024.10.17) - 고흥군은 강소형 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고흥우주발사전망대에서 가을 이벤트 개최. 이 이벤트는 전망대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 - 방문객은 오픈카 드라이빙 체험과 유자 캔들 등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며,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. 이곳은 아름다운 남해안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발전 가능성 증대 - 이번 행사를 통해 고흥우주발사전망대의 관광지로서의 인지도와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,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□ 제주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위한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구축 본격화(2024.10.21) - 제주도는 서귀포시 하원동에 우주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 - 하원테크노캠퍼스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며, 한화시스템의 위성 개발 및 조립시설이 중심이 되어 민간 우주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 - 제주도는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며,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목표로 설정
		□ 첫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개막(2024.10.18) -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는 제1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창원 CECO에서 개최 - 이번 전시회는 우주 발사체, 위성 개발, 항공기 제작 등 우주 항공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며,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최신 기술들을 소개 -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 등 주요 기업과 기관들이 참가하며, 국내외 우주산업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
		□ 박완수 경남지사, 주한 미국대사와 우주항공협력 논의(2024.10.18) - 박완수 경남지사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경남의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협력 방안 논의 - 경남은 우주항공청(KASA)과 함께 방산 및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,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 -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이 글로벌 방산 리더로 성장하는 데 경남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으며, 협력 가능성을 높이 평가
		□ 사천시민, ‘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’ 통과 서명운동 돌입(2024.10.18) - 사천시는 ‘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’ 통과를 위한 범시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 - 이 법안은 우주항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- 사천시는 경남의 18개 시·군에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며, 서명 운동은 온·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
		□ 대구동구-우주스포츠센터, 업무협약(2024.10.21) - 대구 동구와 우주스포츠센터는 저소득 주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 - 우주스포츠센터는 지역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며, 스포츠바우처 대상자의 이용료를 면제 예정 -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

□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국가기관	□ 수출입은행, 수소산업 전분야에 금리·대출 지원(2024.10.17) -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소산업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밸류체인에 대해 금리와 대출한도를 우대하며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 - 특히 수소 관련 해외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사업발굴을 지원하고, 사업타당성 조사에 수소 분야를 추가하여 수소산업의 발전을 도모 -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, 청정수소 분야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
		□ 차세대 암모니아 연료전지 개발할 것...수소 에너지 효율화 한다(2024.10.17) - 한국기계연구원은 저온형 암모니아 연료전지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 중이며, 수소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 - 암모니아를 수소로 변환하는 기술 외에도 암모니아를 직접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- 이러한 연구들은 수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, 특히 저온에서도 작동 가능한 연료전지 개발이 수소 상용화의 열쇠로 주목
		□ KTR, UN도 인정한 온실가스 검증기관...수소·탄소중립 사업 박차(2024.10.17) - KTR(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)은 UN의 승인 아래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탄소중립 인증을 진행하는 국내 검증기관으로 활동.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- KTR은 수소차 연료전지 시험방법 표준화, 인증평가, 기술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, 청정수소 인증 시험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 - 폐연료전지 재활용 등 수소 관련 전주기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며,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
		□ KAIST, 자가발전 수소생산 시스템 개발(2024.10.22) - KAIST 연구진이 아연-공기전지를 기반으로 한 자가발전 수소생산 시스템을 개발. 이 시스템은 그린수소 생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 - 연구진은 기존 화석연료 대비 에너지밀도가 높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촉매 물질을 개발하였으며, 이를 통해 생산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 - 이 시스템은 반복적인 충·방전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며, 수소 생산을 위한 친환경적 대안으로 활용 가능성이 증대
	지방기관	□ 수소↔암모니아 촉매 가격 600분의1로 줄여" 수소시장 엔비디아"(2024.10.17) - 광주과학기술원 학생 창업기업인 암모닉스는 기존 수소 촉매보다 600배 저렴한 촉매를 개발. 이는 수소경제의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 - 수소 운반을 위해 암모니아로 변환 후 다시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, 암모닉스의 비귀금속 촉매는 이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가능 - 암모닉스는 향후 수소 드론 실증운행을 계획 중이며,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 시장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
UAM	국가기관	- (해당 없음)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지방기관	□ 경기도형 UAM모델 구축...광역 교통의 미래를 제시하다(2024.10.21) - 경기도는 도심항공교통(UAM)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, 관련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음. 이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-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와 함께 드론 배송 실증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, 향후 도내 UAM 인프라 및 관리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 - 국토교통부의 UAM 팀코리아(UTK) 워킹그룹에도 참여하여 UAM 사업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, 경기도형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
우주	국가기관	□ KAI, 일본 항공우주전시회 첫 참가(2024.10.17) 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'일본 항공우주전시회'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민간항공 시장 협력을 목표로 다양한 기술을 전시 - KAI는 KF-21 무인전투기와 SAR 위성 등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를 공개하며, 전세계 30개국의 800여 개 업체와 함께 전시회에 참여함. KAI의 민수기체사업 확대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 - 이번 전시회는 KAI가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기술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회로, 향후 민간 항공 및 우주산업에서의 성장을 기대
	지방기관	□ 거창 월성우주창의과학관 ‘거창한 천체사진전’ 개최(2024.10.17) -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‘거창한 천체사진전’ 개최. 이번 행사는 감악산 인공위성 레이저 관측소에서 진행되며, 평소 출입이 제한된 연구시설이 일반에 공개될 예정 - 이번 전시회에서는 은하수, 심우주 천체 등 다양한 천체사진이 전시되며, 방문객들은 거창군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감상 가능 또한, 천체사진 촬영강좌에서 입상한 작품도 함께 전시 - 이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은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받으며,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

□ 민간 및 기타(포럼, 세미나, 토론회 등)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민간기업	□ 빈센, 수소연료전지 기반 레저선박 개발·실증사업 착수(2024.10.17) - 빈센은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레저선박을 개발하며 친환경 해양 모빌리티 시장에 진입. 이 레저선박은 전장 17.4m에 승선 인원 10명, 최대 속도 20노트를 목표로 설정 - 해당 선박은 600kW급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KOMSA)의 도면 승인을 취득. 국내 최초의 수소연료전지 탑재 레저선박으로 주목 - 빈센은 수소연료를 사용한 선박이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, 기술 개발과 실증을 가속화할 계획
		□ CJ대한통운 · KT&G 친환경 물류 맞손...수소화물차 투입(2024.10.17) - CJ대한통운과 KT&G가 협력하여 친환경 물류를 추진하며 수소화물차 2대를 도입. 이는 KT&G 물류에 처음으로 수소화물차가 투입된 사례로 주목 - 수소화물차는 완전 충전 후 57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, 대전공장의 고정 노선에서 사용될 예정.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동력수단의 인지도 제고 - CJ대한통운은 기체 및 액체 수소 운송사업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수소물류 분야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강화
		□ 하이리움산업 “액화수소탱크, 글로벌1위와 기술력 대등” (2024.10.18) -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탱크 분야에서 글로벌 1위인 에어리퀴드와 대등한 기술력을 보유. 특히 이동수단에 설치 가능한 모빌리티 탱크에서 경쟁력을 자랑 - 이 회사는 액화수소를 저장하고 가스로 변환해 배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, 현재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샘플을 수입하고 있으며, 이탈리아의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도 하이리움과 협력 추진 - 향후 하이리움산업은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하고, 독일에 유럽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확장을 계획
		□ 두산에너지빌리티, 美서 수소터빈 연구개발 심포지엄 개최(2024.10.20) -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에서 수소터빈 연구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, 수소터빈 기술력을 소개. 미국 주요 대학과 공동연구도 진행 -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에너지부와 관련 연구기관들이 참석했으며, 두산의 수소 혼소 연소기 개발 성과가 발표됨. 이를 통해 미국 내 R&D 네트워크를 강화 - 두산은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미주 시장에서 수소터빈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, 미국 내 수소발전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
	대학교	- (해당 없음)
	해외	□ 세계 최대 수소충전소가 여기에...하이테크 산업 박차 가하는 中 베이징 다싱(2024.10.17) - 중국 베이징 다싱에 세계 최대 수소충전소가 자리 잡으며 하루 4.8톤의 수소를 공급 가능. 이는 800대의 수소 연료전지차를 충전 가능. - 다싱 국제수소에너지시험구에서는 수소 생산, 저장, 운송, 충전, 연료전지 개발 등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 - 이화통 등 관련 기업들도 이미 1만5000대 이상의 차량에 연료전지를 장착했으며, 수소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
	기타	- (해당 없음)
UAM	민간기업	□ UAM 이착륙장 ‘버티포트’ 프로젝트 전쟁이 시작됐다(2024.10.18) - 도심항공교통(UAM) 시대가 다가오며 이착륙장인 ‘버티포트’ 구축이 중요한 인프라로 주목.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 및 제도 마련 등을 추진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-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대규모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며,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은 이미 1단계 실증을 완료하였고, GS건설은 준도심 지역에서 2단계 실증을 준비 - 국토부는 스마트+빌딩 얼라이언스와 협력해 버티포트 설계 기준을 확정하고, UAM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가속화
		□ 삼보모터스그룹, 내년1월 'CES2025'서 2인승 UAM 첫 공개(2024.10.21) - 삼보모터스그룹은 2025년 CES에서 2인승 UAM 모델 'HAM III-2'를 공개할 예정. 이는 수소 연료전지와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로, 기존보다 더 향상된 비행 성능 우위 - 이 그룹은 UAM 기체뿐 아니라 자율 비행 시스템, 전자부품 개발 등의 혁신 기술도 확보 - 특히 이번 CES에서는 물류 이동 로봇인 AMR도 함께 선보일 예정으로, 좁은 공간에서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력을 보여줄 계획
		□ 현대차그룹, 테크데이에서 UAM 자동조립기술 선보여(2024.10.21) - 현대차그룹은 테크데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(SDF) 비전 발표, UAM 기체의 자동 조립 기술을 공개. 이 기술은 기체의 날개와 동체를 자동으로 정렬하고 조립 가능 - 기존의 수작업 방식을 자동화하여 조립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으며, 이는 UAM 기체 생산 효율성을 대폭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- 또한 AMR을 통해 공장 내 물류를 자동화하고, 3D 측정 기술을 활용해 정밀한 물류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스마트팩토리로의 전환을 가속화
	대학교	- (해당 없음)
	해외	- (해당 없음)
우주	민간기업	□ 아이엘사이언스, 우주용 전고체배터리 특허 출원(2024.10.17) - 아이엘사이언스는 우주용 전고체배터리 성능 향상을 위한 3D 집전체 대용량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. 이 기술은 선택적 표면처리를 통해 전지의 안정성을 제고 가능 - 우주 환경에서 요구되는 배터리 성능은 극한의 온도와 방사선 노출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하며, 이번 테스트 결과 120도 고온에서도 안정성을 확인 - 이번 기술 개발은 향후 우주 산업에서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며, 다양한 우주 탐사 및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
		□ 보령, 美 우주기업과 달 탐사 '우주의학 실험' 협력(2024.10.17) - 보령은 미국 우주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와 협력하여 달 탐사차량에 실을 우주의학 실험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. 이번 협력은 보령이 우주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전망 - 인튜이티브머신스는 미국 NASA와 함께 달 탐사 및 근거리 우주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고 있으며, 이번 협력은 보령의 우주의학 연구와 기술 검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 예정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- 보령은 독일항공우주청(DLR)과도 MOU를 체결하여 우주의학 연구 및 기술 협력을 강화, 우주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
		□ 라이프시멘틱스, 우주 유통 분야 진출(2024.10.18) - 라이프시멘틱스는 스피어코리아와 협력해 우주항공 유통 분야에 진출할 계획을 발표하며, 두 회사의 합병도 고려 - 이들은 다양한 원료와 부품을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, 매출 증대와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 - 향후 우주 유통 센터(SDC)를 통해 핵심 부품의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,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
		□ 페리지, 시험발사체 발사 연기(2024.10.18) -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페리지는 이달 예정되었던 준궤도 발사체 시험발사를 내년 1분기로 연기. 부품 불량과 악천후가 원인으로 추정 - 페리지는 제주 해상에서 해상발사플랫폼을 통해 발사를 계획했으나, 최종 리허설에서 문제를 발견해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 - 신동윤 페리지 대표는 해상발사 운용 능력을 확보한 만큼 안정적인 재발사를 추진 계획
		□ 루미르 "올드스페이스와 뉴스페이스 아우르는 정통 우주기업 성장할 것"(2024.10.21) - 지구관측 SAR 위성 개발 전문기업 루미르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LumirX 군집위성 구축과 연구개발(R&D) 인프라 강화에 나설 예정 - 루미르는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의 개발에 참여하며 SAR 위성의 초고해상도 기술력을 보유 - 향후 올드스페이스와 뉴스페이스를 모두 아우르는 정통 우주기업으로 성장하며, 상용화 가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출을 본격화할 계획
	대학교	□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-한국세라믹기술원, 신성장소재연구본과 MOU체결 (2024.10.17) - 경상국립대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와 한국세라믹기술원 신성장소재연구본부는 항공우주 첨단소재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-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항공우주산업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첨단소재 개발에 협력하며, 이를 통해 경남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극대화할 예정 - 양 기관은 항공우주 전문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기로 하였으며, 고급 인력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계획. □ 경상국립대,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설립 준비(2024.10.18) - 경상국립대학교는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일환으로 '경남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(GADIST)' 설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 - 이번 사업은 지역 맞춤형 연구개발과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며, 우주항공과 방산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선도할 예정 - 경상국립대는 우수 연구팀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, 지역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해외	□ 은하·별 1억개 담은 역대급 우주 지도 공개(2024.10.18) - 유럽우주국(ESA)이 암흑 물질과 에너지를 연구하기 위해 발사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1억 개 이상의 별과 은하가 포함된 우주 지도를 공개 - 이번에 공개된 지도는 목표 영역의 1%에 불과하지만, 1억 개의 별과 은하를 포함하고 있으며, 은하의 복잡한 구조를 상세히 관찰 가능 - 유클리드 망원경은 중력렌즈 관측을 통해 암흑 물질의 실체를 파악할 계획이며, 암흑 에너지를 추적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
		□ NASA도 큰일날 뻔...우주방사선 견디는 반도체 뜬다(2024.10.19) - NASA의 목성 탐사선 ‘유로파 클리퍼’는 우주 방사선에 의해 반도체가 손상될 뻔했으나, 문제를 해결하며 탐사를 지속 추진 예정 - 우주방사선은 반도체 성능을 저하시키며, 이를 견딜 수 있는 내방사선 반도체가 주목. 특히 다이아몬드 반도체가 우주환경에서 뛰어난 내구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 - 세계 여러 기업과 연구소가 내방사선 반도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,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진행
		□ 中 '달 토양으로 만든 벽돌' 우주정거장에 보내 실험(2024.10.21) - 중국은 달에서 채취한 토양으로 만든 벽돌을 우주정거장에 보내 달 기지 건설용 자재로 적합한지 실험할 계획 - 달 토양으로 만든 벽돌은 일반 벽돌보다 3배 이상의 압축 강도를 보이며, 이를 통해 달 기지 건설비용을 크게 감소 가능 - 중국은 달 탐사에서 미국을 앞서가고 있으며, 달 기지 건설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토양에서 추출해 활용할 계획 수립

-끝-